

묵주기도를 해요

배울 거리

1. 묵주기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와 하느님께 순종한 성모님의 믿음을 묵상하는 기도라는 것을 안다.
2. 신비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과 성모님께 드러난 하느님의 영광을 깨닫는다.

미리 갖출 거리

성화, 달력, 성서, 테이프, 색도화지

*황순정_마리아 | 서울대학교 교육국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 연합회



시작 기도

성모송



들어가기

교사는 우리가 묵주기도를 하는 동안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모님의 믿음에 대한 신비를 생각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묵주기도 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아이들이 첫영성체 교리 때 이미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산만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붙여넣기

묵주기도를 할 때 기도문을 외우는 것보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생애에 관한 신비를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 주고, 각 신비의 내용이 담긴 성화를 보여 준다. (※4개의 신비 중 한 가지만 선택해 교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

갖출 거리 : 성화, 달력(탁상용 달력으로 준비한다.), 성서, 셀로판 테이프, 색도화지
방법

달력에 날짜가 보이지 않게 색도화지로 덧붙인 뒤 아래쪽에 성서구절을 적어 둔다. 조별로 성서구절에 맞는 성화를 찾는다. 교사는 아이들이 찾은 성화를 성서구절 위에 붙여 두고 달력을 넘기며 다음 이야기를 들려 준다.

환희의 신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성모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느낀다. 다음 성서 이야기를 들려 주며, 환희의 신비 다섯 단계의 의미를 알아본다.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느님의 명을 받은 천사가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총을 가득히 받은 마리아, 기뻐하세요. 주께서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마리아는 무척 놀랐습니다. 천사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테니, 이름을 ‘예수’라 하세요.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이에요. 그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루가 1, 26-38 참조)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며칠 뒤에 마리아는 여섯 달 전에 아기를 가진 엘리사벳을 찾았습니다. 성령을 가득히 받은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뱃속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 주시니, 제 뱃속에 있는 아기도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말 복되십니다.” (루가 1, 39-45 참조)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겠다는 로마 황제의 선포에 다윗의 후손인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나자렛 동네를 떠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서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리아가 “배가 아파요.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주위 여관에는 방이 없는데, 이거 아단났군!’ 요셉이 걱정하던 중에, 곧 허름한 마구간을 발견했습니다. 마리아는 그곳에서 아기를 낳고 포대기에 싸 말구유에 눕혔습니다.

그 즈음, 근방에서 밤을 새워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당신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

하러 왔어요. 오늘 밤 당신들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자들은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들의 주님을 경배합시다!”라며 별빛을 따라 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허름한 마구간에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운 아기가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주님께 경배하며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루가 2, 1-20 참조)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니다.

의롭게 살던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첫 아기를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율법을 지키려고 온 예수님의 부모와 아기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그 아기가 주님이심을 알고, 두 팔에 받아 안으며 하느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루가 2, 22-38 참조)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과월절을 지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었습니다. 일행 중에 있어야 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고, 사흘 만에 성전에서 학자들과 토론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마리아가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 너를 찾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 하시자, 예수님은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루가 2, 41-52 참조)

빛의 신비]

예수님의 공생활 중 다섯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담겨 있는 신비이다. 교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이루어진 하느님의 계시를 아이들이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게 지도한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르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 오셨습니다. 요한은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제게 오십니까?” 하며 사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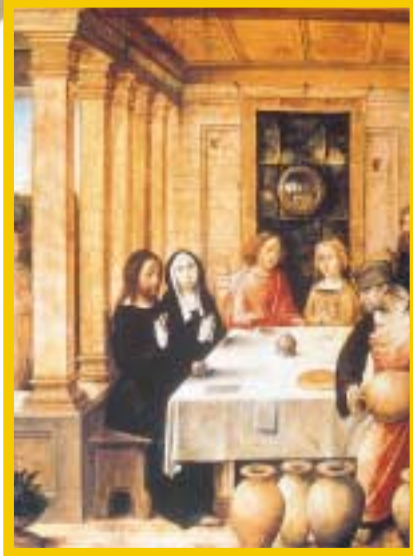
“지금은 내가 하지는 대로 합시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태 3, 13-17 참조)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어느 날 갈릴래아 지방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고 일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히 채워 주세요.” 하고 이르셨고, 하인들은 항아리 여섯 개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을 퍼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십시오.”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술맛을 보고 감탄하며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이 좋은 포

도주가 아직까지 있으니 웬일이요!”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래아 지방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 2, 1-12 참조)

예수님께서 하느님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래아를 다니시며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은 중풍 환자입니다. 제발 좀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지자 사람들은 갖가지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마태 4, 17; 4, 23-24; 9, 35 참조)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태 17, 1-8 참조)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잔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잘 들어라. 이제부터 하느님나라가 올 때까지는 포도로 빚은 것은 결코 마시지 않겠다.”

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올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뻐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을 나눈 뒤에 또 그와 같이 잔을 들어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의 잔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피를 흘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루가 22, 14-20 참조)



※고통의 신비와 영광의 신비 자료는 홈페이지 디다케 자료방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세요.

각 신비를 통해 느낀 점을 나누고,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봉헌하신 것처럼 우리도 올바른 신앙인으로 생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

활동

역할극

방법

교사는 각 신비 내용으로 역할극을 할 수 있게 지도한다. 위의 내용을 그대로 활용해도 좋고, 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후 그 내용을 극본으로 각색해도 좋다.



모으기

교사는 우리가 신비를 묵상하면서 하느님의 영광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마무리한다.



마침 기도